



포도밭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운트 버넌 뮤지엄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1799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워싱턴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된 마운트 버넌 저택(맨션) 전경.

/마운트 버넌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그곳에 가면 조지 워싱턴의 모든것 만나다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3〉마운트 버넌 뮤지엄



지난 2006년 개관한 도널드 W.레이놀즈 교육센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배우기 위해 연중 미 전역에서 온 학생관광객들로 붐빈다.



생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던 다이닝 룸 모습. <마운트 버넌 뮤지엄 제공>

폐허 저택 단장...年 130만명 방문 글로벌 유적지로  
만찬장·침실·식탁·가구·틀니...인간적 면모까지 전시

### 마운트 버넌 =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26km 정도 내려가면 마운트 버넌(Mount Vernon) 뮤지엄이란 유서깊은 사적지가 나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1732-1799)의 저택이다. 포도밭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워싱턴은 재임기간에도 434일 동안 머물며 집무를 수행했다.

마운트 버넌을 방문한 날은 이른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전날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단체관람행렬 치어 ‘떠밀리듯’ 대통령 기념관 등을 둘러봤던 터라 내심 비가 반가웠다. 이날 만큼은 (관광객들이 적어)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버넌 정문엔 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마운트 버넌을 즐겨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운트 버넌은 원래 조지 워싱턴이 팍팍한 일군 농장이었다. 버지니아 주 웨스트모어랜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이복형인 로런스 워싱턴에게서 물려받은 이곳을 본심처럼 아꼈다. 45년 동안 마운트 버넌을 떠나지 않았던 그는 죽어서도 이곳에 머물렀다.

저택과 농장, 정원 등 8천에이커(980만평)에 이르는 마운트 버넌은 워싱턴 대통령이 사망했던 1799년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운트 버넌 여성협

회(Mount Vernon Ladies Association)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마운트버넌은 워싱턴이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급속히 쇠락해갔다. 농장을 상속받은 워싱턴의 조카는 시장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농장 유지가 어려워지자 사실상 방치했다.

이 때 마운트 버넌 출신의 앤 파멜라 커닝햄을 비롯한 일부 여성들이 폐허가 된 워싱턴저택을 되살리자며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1858년 미 전역에서 답지한 20만 달러의 성금으로 이들은 ‘마운트 버넌여성협회’를 발족하고 워싱턴 유가족으로부터 마운트 버넌을 구입해 문화사적으로 가꾸었다. 지난 1960년 국가유적지로 지정된 이후 워싱턴이 좋아했던 초록색으로 저택의 실내벽면을 단장했으며 식탁, 의자, 가구, 심지어 틀니까지 전시하고 있다.

현재 마운트 버넌에는 저택을 중심으로 정원, 온실, 부속시설, 묘지 등이 들어서 있다. 마운트 버넌의 투어는 포드 오리엔테이션 센터를 시작으로 노예숙소·대장간·정원사 자택·하인숙소가 모여 있는 어퍼가든(upper garden), 메인 건물인 워싱턴 맨션(저택), 세탁장·훈제실·마차보관소·마구간·방목장 등 부속시설, 파수원과 묘목원, 워싱턴 묘지, 노예기념관, 도널드 W.레이놀즈 박물관 & 교육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워싱턴 맨션에는 당시 조지 워싱턴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침실과 거실, 다이닝 룸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했던 1층 서재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의 사교의 장이었던 다이닝 룸은 마치 오늘날도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맨션

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걸다 보면 워싱턴 유해가 묻혀 있는 붉은색 벽돌 무덤이 나온다. 묘지 앞에는 내셔널 몰의 워싱턴 모뉴먼트를 축소한 듯한 기념비 2개가 세워져 방문객들의 웃거리를 여미게 한다.

워싱턴 맨션과 함께 마운트 버넌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2006년에 개관한 도널드 W.레이놀즈(Donald W. Reynolds) 박물관 및 교육센터다. 마운트 버넌의 홍보매니저인 멜리사 우드(Melissa Wood)는 “레이놀즈 센터는 워싱턴의 삶과 업적 등을 계승하는 산실로 활용하기 위해 자선사업가인 레이놀즈 재단이 쾌척한 2400만달러를 모태로 건립됐다”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등 인근 초·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놀즈 센터는 워싱턴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700여 점의 유품을 전시하는 23개의 갤러리와 워싱턴의 일대기를 인터랙티브 영상과 영화로 소개하는 상영관, 2만여 통의 편지 등 희귀문서들을 접할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워싱턴 대통령 흉상은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시효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다. 맨션투어,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전 세계에서 130여만 명이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키워가고 있다. 한국어 등 10여 개 언어의 가이드 북이 제작될 정도다. 미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입장료와 기념품 매장, 연회장 대여 등의 수익금으로 450명의 직원들과 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수십여 명이 교대로 해설사와 경비원, 안내원 등의 ‘문화지킴이’로 활동한다.

마운트 버넌은 폐허 위기에 몰린 워싱턴 저택을 글로벌 유적지로 키워낸 미국인들의 지력을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배출한 미국의 내공과 그의 발자취를 문화상품으로 키워내는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언제쯤이면 마운트 버넌 못지않은 대통령 유적지를 갖게 될까.



## 365생은 우리가족이 365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의 고품질 안전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항상 싱그러운 당신을 위해

우리 가족의 안심먹거리를 위해  
오랫동안 자연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생생한 맛과 신선함을 365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장성에서  
최고의 제품만을 엄선하였습니다.

### 365생

항상 싱그러운 당신을 위해



‘365일 항상 친환경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담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친환경 신도시 장성군의 약속을 담은 대표 브랜드입니다.